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 상생협약안 전달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가 군민 대상 설문조사·청년포럼·경청대회 과정을 통해 밝혀한 청년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지원정책의 상생협약안을 노형수 고창부군수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는 2023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창군 미래 일자리 비전, 기업유치 방향 등을 논의해 왔다.

지난 7월 개최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시작으로 각종 인터뷰, 간담회 등을 거쳐 상생협약안을 확정했다.

상생협약안에는 △일자리창출과 일력난 해결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청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 △생활인프라 구축 △민집을 활용한 청년 주거 공간 구축 △유저 너 신혼부부 대상 태운하우스형 공공주택 조성 등이다.

노형수 고창부군수는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 주신 노사민정협의회 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정을 추진하는 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활력 넘치는 고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부안초, 전국어린이연극잔치 금상 수상

고창부안초등학교가 제80회 전국어린이연극잔치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는 초등 교육연극연구회 및 교사극단 선생님들의 협신적인 노력과,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낸 의미있는 결실이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전국의 지역대회를 통해 선발된 8개 초등학교가 참가, 지난 11월 27~30일 서울 대학로 한예극장에서 개최됐다.

이에 전북에서는 제19회 전북어린이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고창부안초(지도교사 이승희)의 V Library 가 참가했다.

이는 VR을 통한 가장 세계에서의 다양한 체험과 모험을 주제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펼쳐질 학교 교육의 한 단면을 연극적 상상력으로 흥미롭게 그려냈다. 더욱이 고창부안초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 심사위원장인 최지영 예술감독은 “고창부안초의 V Library 작품은 가능한 공간에 대한 탐구와 상상력을 구현하고자 한 것과, 관습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 서술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른 친원의 시도를 보여준 의미있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고창부안초 정대연 학생은 “작년에 오빠들이 연극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부러웠는데 올해 직접 연극을 해보니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희 지도교사는 “일년에 연극 한 편 만들기’를 학급 목표로 삼고 아이들과 지내고 있는데 연극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큰 행복이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과 학급 특색활동으로 연극을 만들며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미숙 남원 여성단체 부회장, 사랑의 두유 기탁

남원시 인월면은 이미숙 남원시 여성단체부회장(지리산금종 대표)이 6일 복지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어르신에 전달해 달라며 두유 6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미숙 부회장은 매년 “사랑의 두유”를 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추운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이 더 힘들 듯 텐데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인월면 관계자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도움을 주신 이미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더 춤출하고 틈새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크리스마스 쌀로 따뜻한 마음 전해

전북도,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 등 위해 모금사업 동참

전북도는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크리스마스 쌀 모금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전북도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임환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크리스마스 쌀 증정식이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꾸준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쌀 모금에 많은 도민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 직원들도 매년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기금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이며 2023년 크리스마스 쌀 모금사업은 대한결핵협회 주관으로 12월까지 총 30억원 목표로 전북지역 목표액은 1억700만 원이다.

국민의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대국민 결핵예방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크리스마스 쌀은 유명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대표작품을 담아 가족, 사랑, 우정 등 모든 세대가 두루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 결핵 없는 내일에 희망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지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노인 일자리 대회 우수지자체 수상

남원시는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지난 5일 열린 2023년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국노인일자리대회에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노인일자리 대회는 한 해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한 지자체와 유공자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남원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분야 적극 행정 추진을 인정받아 타 8개 지자체와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폐리를 이뤘다.

올해 남원시 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획인 남원시니어클럽 등 6개 수행기관과 읍면동을 통해 올해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49개 사업을 진행해 4,2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남원시 노인장애인과 김현우 과장은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力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촌에 활력’... 정읍시, 농촌재능나눔 대장정 마무리

정읍시는 6일 영월면 서부복지센터에서의 재능나눔을 마지막으로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농촌재능나눔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학산고등학교(교장 성미숙)와 시 북부 노인복지관(관장 유후희)이 함께 참여해 신태인·감곡·영원·이평·고부면, 칠보·웅동·신내·신외면 등 1000여명의 주민에게 재능을 나눴다.

학산고 학생들은 섬진강댐·서부복지센터·북부노인복지관 등에서 헤어메이크업·구강 건강 지키기·치매 예방 운동 등의 활동을 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감곡면, 이평면 소재 미들로 찾아가 건강 마사지, 취미활동 지원, 위생교육 등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학생과 글로벌 의식 조리학과 학생들은 직접 만든 소불고기 밀키트를 배부해 어르신들이 균형 있는 영양 섭취에 도움을 줬다. 또한 노인층들이 소홀히 쉬운 위생관념 향상과 치매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능나눔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장수사진촬영, 노래교실, 장기자랑 등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이번 재능나눔활동에 참여한 주민은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과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었다”며 “손주 같은 학생들이 와서 너무 기쁘고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곽천원 과장은 “농촌재능나눔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힘을 불어넣고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보건소, ‘싱싱생생 건강교실’ 확대 운영

남원시보건소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인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경로당 78개소에서 4,403회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지난 12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은 198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참여 희망 경로당을 조사하고 10월~11월에는 전문 체조강사 모집 및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32명의 전문 체조강사를 발탁했으며, 체조강사의 전문성 및 강의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보수교육을 진행했으며, 겨울에는 △근육 강화를 위한 건강 체조교실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및 건강상담 △심뇌혈관질환·치매·우울감 예방 영양관리 등 보건교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강측정 및 건강상담을 통해 노년층에서 조심해야 하는 고혈압·당뇨·고콜레스테롤증 등 질환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체조교실의 경우 주 2회 전문 체조강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신나고 경



쾌한 음악에 맞춰 유산소운동, 균형운동, 생활체조 등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균형 개선을 도와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의료관광 인력 양성 아카데미 성료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내 의료관광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북 의료관광 인력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기초 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과정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해 총 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아카데미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검화·의료관광 미케팅, 기초의학용어·관광사업트렌드·의료관광의 이해·의료관광 상품개발 교육 과정으로 진행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인 의산 원광대병원과 전주 대자인병원에서 견학이 이뤄져 대자인·병원 김종원 센터장, 원광보건대교수·소재민 교수·전주대학교 심우석 교수가 교육을 진행했다.

무주군공무직노동조합은 6일 무주군과의 2023년도 임금 협약 체결식 직후 장학금 2백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각각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군공무직노동조합 오순덕 지부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며 무주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무주군공무직노동조합원들의 마음을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아 전달하게 됐다”며 “무주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나기에도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지역과 함께하는 무주군공무직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인홍 무주군교육발전진흥학재단 이사장은 “해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주시는 노조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무주=김은성 기자

안봉태 백두산업 대표, 주생면에 고향사랑기부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최권열 회장은 지난 2일 김제에서 개최된 제3회 우수선수 선발전과 최강전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개회식에서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김제시 (시장 정성주)에 기부했다.

최권열 회장은 대학민족 태권도의 산 증인으로 선수시절 수많은 메달을 획득해 김제를 빛낸 바 있으며 이후 교직에 몸담아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2019년부터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을 역임해 오고 있다.

진봉면이 고향인 최 회장은 오래전 출향했으나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심으로 본인의 활동 영역에서 김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애향 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곽노태기자

서원필 서정에너지 대표, 안천면에 성금 기탁

남원시 주생면은 출향 기업인 안봉태 대표((유)백두산업 개발)가 6일 주생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주생면이 고향인 안 대표는 중장비 사업을 확장해 백두산 업계를 설립했으며, 2020년 8월에는 수해지역에 본인의 중장비를 적극 지원했다.

이날 안 대표는 “주생면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며, 여기서 맛있는 인연과 주인翁으로 남원시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전했다.

노일환 주생면장은 남원을 잊지 않고 기부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문화관광재단, 장학금·이웃돕기 등 기탁

진안군 안천면(면장 이정희)은 6일 (주)서정에너지 서원필 대표가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최근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이 이웃돕기 나눔 실천에 앞장서 의미를 더했다.

서원필 대표는 “나가오는 연말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살피며 최선을 다해 나눔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면장은 “따뜻한 기부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탁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원필 대표는 2021년부터 매년 진안시립정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